

방심을 접으면, 안전이 보입니다.

7

금호미쓰이화학 여수공장


강 안 원 대리



아름다운 지구, 아름다운 사람



아침부터 비가 내려 혹이나 여수로 가는 비행기가 결항이라도 되는 게 아닐까 내심 걱정하며 전철에 올랐다. 다행히 예정대로 차질 없이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낮게 깔린 먹구름. 서울 하늘은 온통 까맣다. 활주로에 선 비행기, 요란한 굉음을 내며 창공을 향한다.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는데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억 방울의 빗방울을 뚫고 자유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비행기, 한참동안 구름 속을 날아 곧 온통 푸른 빛 하늘이 눈앞에 펼쳐진다. 기지개를 펴고 여수공항에 도착해 출구로 나왔다. 서울의 검은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여수의 하늘은 푸르기만 했다.

MDI를 주생산품으로 하는 금호미쓰이화학주식회사 환경안전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안원 대리, 이곳 현장의 안전을 지켜온 지 어느덧 16년이 지났다. 그의 고향은 전남 무안, 지금의 전남도청이 들어선 곳이다. 원래 전공은 공업경영으로 안전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수출입관련 업무를 했다고 한다. 1991년 금호미쓰이화학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처음에는 5년간 현장업무를 쌓고 1995년에 환경안전팀으로 전보 후 지금까지 안전업무를 해 오고 있다. 입사 초기 생산업무에 종사하던 때부터 남달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차라 안전업무의 전담은 그에게 큰 기회가 되었다. 지금처럼 안전의식이 높지 않았던 당시 무엇보다 교육에 힘써야 함을 깨닫고 보호구착용과 안전작업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작업시작 전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 그러던 1995년 여름, 그가 안전업무를 맡고난 이후 가장 큰 시련이 닥쳤다. 원료수입공정에서 황산을 수입중 황산이 작업 중인 근로자의 얼굴에 튀어 화상을 입은 사고, 사고 기인물인 황산(98%)은 피부 조직을 심각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 강산(強酸)이었던 것이다. 급히 응급조치를 취한 후 응급차로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후송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심한 자책감과 고통으로 얼룩지었다. 다행히 그는 성공적인 이식 수술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사로 돌아 왔지만,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그에게 벗어 던질 수 없는 짐으로 남았다고 한다. 그런 아픈 경험은 그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고,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그를 거듭나게 해 주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12년, 이제 무재해 8배수를 달성하고 있는 현장을 비롯하여 PSM의 안정적 정착, 근로자들의 높은 안전의식 등이 그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그의 노고가 인정되어, 2007년 산재예방유공자 포상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제가 잘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강안원 대리,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의 결실은 그의 노력 덕분이라 말한다. “이제 반환점을 조금 지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의 한결같은 안전에 대한 열정으로 금호미쓰이화학주식회사의 무재해 10배 달성을 기원해 본다. 

〈임재근 기자〉